

## 韓國人の 健康慣行에 對한 民俗科學의 接近

金 貴 粉\* · 崔 榮 熙\*\*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看護(Nursing care)는 人類歷史의 始作에서부터 由來되어 疾病治療, 健康維持, 增進 및 豫防은 물론 人間性의 回復에도 重要하며, Cure 없는 Care는 있을 수 있지만 Care 없는 Cure는 存在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強調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일찌기 身體의 看護의 強調로 疾患次元의 臨床의 돌봄에 關係가 깊었던 看護는 이제 健康 및 疾病에 關連되어 內在되어 있는 表面化되지 않은 心理, 社會, 文化的인 여러 側面들을 이끌어 내어 이와 關連있는 人間行動 및 健康慣行을 理解하려는 努力이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健康을 지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健康慣行을 논하기 앞서 健康에 대한 論議가 重要視되는바, 健康이란 學者마다 多少 見解差異가 있으나 “身體的, 精神的, 情緒的, 社會的으로 統合된 狀態로 機能하는 것”으로 健康-疾病을 같은 連續線上에 位置한 삶의 全體的인 課程으로 간주되고 있다(Newman, 1979).

그리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모든 人類의 關心事인 健康과 關連된 바람직한 知覺과 行動을 誘導하기 위해서 認知的 中裁過程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社會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y)에 基礎하여

健康行爲의 影響要因을 說明하려는 試圖를 해 왔다.

즉 看護는 社會內에서 人間性을 保存해야 하는 社會的 役割을 지닌다. 또한 看護의 對象인 人間의 行爲를 理解함에 있어 그 社會를 이끌어가는 價値에 대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急擊한 社會構造의 變化, 科學의 發展과 傳統의 價値와의 不調和로 人間價値의 混沌을 겪으면서 近代化가 곧 西歐化로 直結되던 觀點에서 벗어나 韓國人の 意識底邊에 흐르고 있는 固有의 것들을 發見, 保全하는 努力이 要求된다.

예로부터 우리 先祖들은 日常生活에서 뿐만 아니라 端午날이나 대보름 등 節氣마다 健康을 위해 福을 비는 歲時風俗과 歲時食飲 行爲 및 健康慣行을 面面이 이어 왔다. 이러한 健康에 關한 風俗은 農耕民으로서의 特有한 思考方式에서 나온 것으로서 最大關心은 健康과 長壽에 있었으며 陰陽原理나 呪術的인 힘을 이용한 것이 많았다(김기설, 1982). 즉 우리나라와 같이 傳統的文化가 支配的인 社會에서는 우리 人間의 意識構造 속에 자리잡은 價値觀이 우리의 廣範圍한 生活世界(life world)를 유지, 創造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이영자, 1989).

이렇듯 韓國의 傳統文化 속에 反映된 韓國人の 氣質, 性格, 意識構造, 行動樣式을 反映하는 慣習의 儀禮인 歲時風俗을 爲始하여 先祖에 의해 專修되고 蓄積된 經驗의 總體, 즉 固有한 傳統文化가 있음에도 不具하고 우리

\* 慶熙大學校醫科大學 看護學科 教授

\*\* 梨花女子大學校 看護大學 教授

는 韓國文化에서 蓄積되어온 經驗이나 慣習의 總體는 더딘지 모르게 非科學의이고, 進步의이지 못하며 迷信이라는 생각으로 一見無視되어 왔다.

특히 韓國 看護教育이 韓國文化에 대한 皮相의인 知識과 固定된 自民族中心主義의 姿勢나 態度를 지닌 西洋人이나, 西洋人에게 教育받은 者들에 의해 實施되므로, 오히려 自民族 中心主義의인 그들의 知의 一元主義가 膨大시키는 役割을 하는 한편, 우리 社會文化에서 蓄積되어온 經驗이나 慣習의 總體는 非科學의 또는 科學發達の 水準差異로 看做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傾向은 우리 社會文化에서의 看護의 本質을 糾明하기 보다는 西洋의 社會文化現狀을 理解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특히 看護學의 中心概念은 人間(對象者), 社會(環境), 健康(疾病) 및 돌봄(care) 이다(방매륜, 1983; NLN, 1975; Bush, 1979; Flaskerud & Halloran, 1980; Bilitski, 1981; Newman, 1983; Fawcett, 1983, 1984). 看護의 本質인 돌봄이 看護對象者에게 滿足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看護는 그 對象者의 文化를 尊重해야 하며, 安全한 範圍內에서 그 文化와 一致되어야 하는데(Leininger, 1978, 84, 85, 88b; Rosenbaum, 1989; Martin etc., 1989; 최영희, 1989; Gaston-Johansson etc., 1990), 그러기 위하여 우선 對象者의 文化에 따른 健康을 위한 健康慣行이 確認되어야 한다. 즉 多樣한 文化的 要素는 疾病의 治療, 回復, 預防 그리고 健康한 生活類型을 維持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기 때문에 看護師가 看護修行을 하기 위해서는 社會文化의인 障礙要因을 認識하고, 理解할 必要가 있다(Aguilera, 1970; Leininger, 1984; Tripp-Reimer etc., 1984).

그러나 健康(疾病)을 위한 看護에 있어 文化的 關心에 대한 醫療人의 理解의 缺如로 對象者가 現代 醫療서비스를 利用할 때 看護의 不在 및 看護師의 不親切이란 汚名을 指摘하게 되었다.

韓國 傳統醫療의 本質은 人間을 大宇宙를 본 뜬 小宇宙로 理解하는 것이며, 西歐의 現代醫療와는 달리 分化기 아니라 綜合이며 調和 및 共鳴論(Resonance)의으로 理解되고 있다. 疾病은 社會共同의 責任이며 이러한 共同體 意識을 통한 강한 道德性은 西洋의 傳統과는 깊은 對照를 이루어 傳統文化 속의 特殊한 慣行(practice)의 基礎가 되므로 健康(疾病)의 概念이나 健康慣行이 西歐社會와 相異할 수도 있다. 즉 韓國의 農耕社會를 主軸으로 한 家族主義의 特性, 集團性의 特性 및 文化特性에 의해 健康을 維持, 增進시키려는 健康慣行에는 西歐社

會와 差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認識은 1950年代 中盤 美國 Leininger를 中心으로 橫文化 看護(transcultural nursing)라는 새로운 理論으로 活潑히 研究되어 文化人類學의 側面에서의 試圖인 民俗科學的 接近(Ethnoscience approach, Ethnonursing)이 紹介되어 健康과 돌봄의 研究에 利用되고 있다. 특히 文化에 따른 健康慣行(Health practice)을 研究하기 위해 바람직하고 意味있는 接近法이 民俗科學的 接近인데, 이러한 質的인 民俗科學的 研究法은 數量化 될 수 없는 人間의 眞實한 見解나 信念 및 正해진 生活方式를 깨닫게 하는데 健康 및 돌봄, 環境的 要因들과 같은 實際의 또는 潛在的 看護現狀에 關해서 서로 다른 言語的 意味, 文化的 經驗, 價值體系를 통해 認知的으로나 主觀的으로 알려진 健康信念, 價值, 慣行 등에 대한 體系의인 研究와 分類에 重點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年代初 橫文化看護理論이 導入되어 우리의 固有한 文化樣相을 看護에 連結시키기 위한 努力으로 文化看護의 重要性에 대한 심포지움(최영희, 1989)이 열렸으며, 質的 研究 方法(Qualitative Research)을 活用한 研究가 시작되어(방매륜, 1983; 김남선, 1987; 고성희, 1990)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實際 우리 民族 固有의 傳統文化속에 담겨져 있는 民俗科學的 接近에 의한 健康이나 돌봄의 概念을 確認하기에 未洽한 狀態이며, 더우기 健康慣行을 찾기위한 시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韓國人的 價値와 信念에 影響을 주었을 韓國의 文化, 思想을 보면, 自他的 非分離性과 現世를 中心으로 한 過去, 未來의 非分離性을 가지고, 우리의 家庭은 모두의 “나”가 “우리”로 녹아든 곳으로, 나의 現在는 過去가 담겨져 祖上이 깃든 것이며, 現在의 나의 몸안에는 모든 祖上이 나와 함께 물려줄 “未來”가 또한 고여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時間으로는 現世中心의 過去, 現在, 未來라는 三狀과 現存에는 祖上, 自身, 子孫의 人間 三存이 包攝되어 있어(정순옥, 1980; 김재만, 1980) 우리의 習慣의 健康慣行속에서도 아마 過去, 現在, 未來가 同時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習慣의으로 잘 傳承되고 잘 保護되어서 正當化된 民俗의 健康慣行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實情이다. 우리는 農耕社會를 中心으로 儒·佛·禪의 宗教儀式과 傳統漢方 및 民間療法이 사며니즘과 뒤섞여 發展해 왔기 때문에 言語 및 其他의 象徴(飲食의 範疇, 色調, 男女의 象徴 등)에 나타나는 健康慣行 역시 獨特하리라 豫想된다.

物質은 現實이고 文化는 높은 理想이며, 人間의 意味는 文化를 가졌다는데 있다. 또한 人間의 窮極의 目的과 期待는 健康하게 오래사는 幸福한 삶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物質과 文化를 겸비한 채, 오랜 經驗과 智慧의 所産인 傳統文化속에서 살아온 老人들의 思考原型, 價値, 信念을 바로 把握하는 것은 固有한 傳統文化 形狀과 健康慣行 把握의 지름길일 것이다.

예컨데 白髮속에 寶石이 있다는 말처럼 老人의 오랜 生活經驗 속에서 우러나오는 言行은 人間이 이 世上을 살아가는데 貴重하고도 有益한 삶의 敎訓이 되고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智慧가 담겨져 있다. 즉 老人들은 오랜 歲月을 통해 얻은 貴重하고 有益한 經驗과 歷史的 苦難을 겪으면서 생겨난 洗練된 智慧와 폭넓은 知識과 슬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祖上, 自身, 子孫의 人間 三存이 存在하고 있기에 代代로 우리 固有한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이 그들 속에는 그대로 保存되어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傳統의인 健康慣行에 대한 祖上의 智慧와 슬기를 發掘하기 위하여 대체로 外部와의 接觸이 적어서 傳統文化의 保有와 傳承이 比較的 잘되고 있다고 考慮되는 農村 山間地方 長壽老人들을 對象으로 健康 慣行을 記述하여 그러한 行態의 原型을 傳統文化 思想속에서 探索하고자 한다. 窮極의으로 本 研究는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함으로써 文化要求에 附合되는 健康教育을 시키고 健康慣行을 勸獎하여 質의인 看護로 發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 2. 研究의 目的

人間의 窮極의 期待는 健康하게 幸福한 삶을 營爲하는 것이다. 看護는 이러한 人類의 所望을 實現시키는데 寄與하는 職業理想의 專門職이다.

19世紀末 西洋醫療가 受容된 이래 韓國의 看護는 西洋人의 價値와 信念體系에 따른 看護를 그대로 踏襲하고 模倣해 왔다. 그러나 人間의 思考와 行爲가 文化的으로 再解析되는 時代的 潮流속에서 看護도 文化에 알맞는 돌봄을 提供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韓國 傳統文化 속에 鎔解되어 있는 健康(疾病)을 위한 健康慣行을 確認함으로써 國民이 文化的으로 一致되고 滿足스러운 健康慣行을 實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研究의 目的에 따른 具體的인 研究目標는 다음과 같다.

- 1) 基層文化가 갖는 健康慣行을 確認한다.
- 2) 確認된 健康慣行을 傳統文化思想속에서 解釋學的으로 探索한다.
- 3) 基層文化의 健康慣行을 比較文化的으로 檢討한다.

## 3. 用語의 定義

### 1) 健康慣行(Health Practice)

새 우리말 큰사전(1981)에 의하면, 健康慣行이란 健康을 위하여 “以前부터의 習慣을 따라서 함”, “노상 行함”, “늘 함”, “熟達하여 잘함”으로 나타나 있다. 習慣이란 後天的으로 經驗에 의해 習得된 習得의 本能으로, 品性이나 言語와 같이 生物의 意志作用에 의한 生理的 機能이다. 또한 習慣은 斷定的, 強要的, 自己保存의 本性을 지니며, 人間의 一切 行動에 끊임없이 作用하여 環境과 相互作用으로 人間의 性格을 形成시킨다(황경식, 1982). 존 듀이에 의하면 習慣이란 經驗중의 連續的 要素로서 後天的으로 習得된 行爲의 骨格이며, 길이라 하였는데, 즉 人間은 習慣의 創造物으로써 習慣에 의해 行爲하는 것이지 理性이나 本性에 의해 行爲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김태길, 1979). 특히 健康慣行에 影響을 주는 것은 價値體制로, 價値에 의해 信念이 생기고 信念에 根擧하여 慣行(習慣)이 이루어진다고 Tripp-Reimer 등(1984)은 主張하면서, 習慣에 의한 行爲(慣行)는 客觀的인 觀察이나 敘述이 可能하지만 信念이나 價値는 客觀的인 觀察 및 尺度가 어렵다고 指摘하였다(Bee, 1974 ; Tripp-Reimer etc., 1984 ; Martin & Henry, 1989).

따라서 本 研究에서 健康慣行이란 우리 傳統文化思想에 根幹을 두고서 全生涯 生活經驗에 의해 習慣의으로 習得되어져 行하여 왔거나 現在 遂行하거나, 子孫을 위해 遂行하고자 하는 健康(疾病)에 따른 모든 意志의 行爲가 參與觀察 및 面談을 통해 記述된 一切를 말한다.

### 2) 民俗科學의 接近(Ethnoscience Approach)

民俗學(Ethnology)이란 民間傳承을 通하여 國民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農, 工, 商, 漁民들의 民族大衆一般의 宗教, 社會, 經濟, 藝術 등 生活의 모든 形態와 內容, 그리고 그 變遷의 발자취를 찾고 民族傳統文化, 즉 民族의 삶의 모양과 方法 그리고 삶의 意味와 原理를 밝히고자 하는 學問이다. 이는 英國의 William John Thomas(1803-1885)가 “Folk lore”라는 말을 처음 使用하였고, 이는 本來 民間의 智識(The learning of the

people)이란 意味를 갖는다(김태곤, 1984; 김동욱 외, 1988; 최상수, 1988). 그리하여 民俗學은 어떤 特定한 文化集團에 대한 科學的인 徐述 그 自體에 關心을 갖는 것으로서 民俗科學의 接近이란 自然 그대로의 環境에서 사람들의 行爲나 그들이 自身들의 世界를 어떻게 認知하고 알고 있는지에 대한 精確한 說明을 얻기 위하여 指定된 文化集團의 生活方式에 관한 體系의 研究이다. 이를 위해 文化記述學의 現地調査作業이란 參與觀察 및 面接을 통해 現地人的 觀點에서, 다른 生活方式를 理解하는 것이다(이희봉 역, 1987). 따라서 研究者는 觀察者로서 對象者들의 世界에 들어가 그들의 習慣, 儀式, 象徵을 探究하는데, 觀察, 討議, 質問, 確認 등의 過程을 통해 特定한 文化에 대한 個人的인 智識을 넓히고 이것을 概念化 하는데, 接近方法에는 智識의 文化的 構造內에서 住民들 自身이 어떻게 알며 認知하고 있는가를 分析하는 emic 觀點과 한 民族文化를 觀察者의 立場에서 客觀的으로 分析하는 etic 觀點으로, 이는 일어난 事件에 대한 個個人的 獨立的 觀察이 비슷한 結果로 徐述될 때 妥當性을 評價 받는다(Leininger, 1978; 한상복 외, 1986; 이희봉 역, 1987).

그리하여 本 研究에서는 특히 對象者의 傳統文化思想의 흐름속에 지내온 全生涯 過程동안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開放的, 創造的, 自然的인 展開過程으로 參與觀察 및 面談을 통해 確認하여 記述한 質的인 接近去을 意味한다.

## II. 研究方法 및 節次

Leininger(1969)는 看護現狀을 研究하기 위하여 간호과학에 文化人類學에서 利用하는 質的인 研究의 一環인 歸納的方法 즉 科學的인 知識의 發見을 위한 民俗科學의 接近(Ethnoscience approach)의 導入을 試圖하여, “對象者들이 自身들의 世界를 知覺하고 解析하는 方法과 行動에 대한 正確한 說明을 얻으려는 目的下에 特定한 文化의 生活方式를 體系的으로 研究”를 주장하였다. 이로써 文化的으로 一致된 健康慣行을 敘述, 說明, 解析, 豫測함으로써 多樣한 文化속의 對象者에게 一致되고, 滿足스럽고, 有益한 質的인 돌봄을 提供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여러 理論家들에 의하면 돌봄이란 研究되어진 現狀으로써 當연한 理論의 概念으로 想像할 수 없고 차라리 그것을 具體的인 行動(action)이나 慣行(practice)으로 보았다(Leininger, 1986; Deers, 1988; Lundh etc.,

1988). 民俗科學의 接近方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文化看護의 側面을 認識하고, 敘述하고, 說明함이 가능하며, 實際로 總體的인 觀點으로부터 文化看護와 看護의 意味, 象徵, 形態 그리고 表現에 대한 對象者들의 emic 觀點(地域住民의 觀點)을 이끌어내는 強力한 欲求에 따라(Leininger, 1988), 開放式 民俗學의 또는 文化人類學的인 質的인 研究方法를 통해 健康慣行에 대한 主觀的인 次元 뿐만 아니라, 덜 客觀的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微妙한 事實을 알아내며, 미리 豫定된 變數의 使用없이 自然的인 脈絡에서 文化看護의 表現方式內에서 現狀 그대로의 價値, 信念, 意味, 感情 및 一般의 特性을 包含한 모든 것을 可能的인 完全하고 包括的으로 記述하여 說明할 수 있으리라 본다(Littlewood, 1989).

그리하여 本 研究는 開放的, 創造的 그리고 自然的인 展開過程을 통해 우리 傳統文化思想의 흐름속에서 지내온 全生涯 過程동안에 행해진 健康慣行을 確認할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해 質的인 研究方法인 民俗科學의 接近法을 시도하였으며, 民俗科學의 接近의 調査方法인 參與觀察 및 面談法(이희봉 역, 1987)을 利用하였다.

### 1. 研究對象

가. 對象者의 選定 및 社會文化的 背景

本 研究의 對象者 選定은 研究의 性格이나 特性에 따라 韓國 傳統文化思想을 그대로 保有하면서 外部와의 接觸이나 massmedia의 露出이 되지 않은 곳에 살면서, 企劃院 調査統計局(1990, 2)의 70歲 以上 人口 및 構成比에 따른 分類에서 構成比 1.0 以上으로 分布되어 있는 慶南 山淸郡을 選定하였다.

現地調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調査者가 그 地域住民과 좋은 對人關係(Rapport)를 形成하는 것이다. 특히 血緣이나 地緣에 대한 執着이 강한 韓國人의 特性上 아무 緣故가 없는 調査者라면 地域住民들로부터 外部人으로서 排斥될 憂慮가 있어 調査者는 여러가지 行動制約을 받으며, 또한 깊고 充分한 資料蒐集이 어렵다. 또한 이 研究는 韓國人의 傳統文化思想에 基底를 둔 健康慣行을 把握하고자 하므로, 加급적 土俗文化의 喪失이 없고, 傳統이 잘 保有되어 있는 地域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考慮하여 緣故가 있고 比較的 傳統이 잘 保存되었다고 생각되는 본 마을을 選定하였다. 이 마을은 智異山 下端 기슭에 자리잡은 農村마을로 淸州에서 北西方向으로 38km 거리에 位置하며 마을에서 3km 떨어진 支店까지만 定期 버스 路線이 닿아 外部와의 接觸

이 많이 制限되어 있다.

이 마을이 형성된 뚜렷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百濟時代부터 이루어진 自然部落으로 住民 거의 모두 이곳에서 태어난 原住民들로 南陽 曹씨가 마을 主流를 이루고 있다. 曹氏외에는 金, 丁, 李氏가 살고 있었으며 주로 親, 姻戚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은 智異山 기슭에 위치하며, 마을 양 사이로 智異山 溪谷에서 흘러내려온 물에 의해 시내가 形成되어 흐르고, 이 물을 食水로 使用하였다. 마을 隣近山에는 밤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한복판에는 대나무가 있으며, 집집마다 감나무가 平均 2그루 이상 있어 연시와 곶감이 주요 間食 및 손님 接待용으로 使用되었고, 住民들 생각에는 이 세 種類의 나무와 智異山의 물이 그들을 健康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었다.

對象者數 및 年齡範圍은 우리나라 老人들의 平均壽命에 該當되는 70歲(經濟企劃院, 1990, 2)를 基準으로 하였고, 對象마을은 總 30戶에 100餘名의 人口로서 70歲以上の 老人은 男子 11名, 女子 16名 總 27名이 살고 있었으며, 意思疏通이 不可能한 9名을 除外한 18名이었다. 이중 男子 7名, 女子 11名 이었고 對象者의 年齡分布는 最低 71歲에서 最高 89歲로 平均 73.1歲였다.

對象者들의 體型的 特徵을 보면 보통기(男子 : 170cm, 女子 : 150-155cm 정도)에 거의 모두 마른편이거나 適當한 體重이며 귀는 잘 들리고, 눈은 必要時만 돋보기를 쓰고, 齒牙는 거의 모두 빠져서 不健康한 狀態였다.

對象者中 主要 情報提供者만이 現代教育機關인 中學校 1年을 中退하였고, 男子 老人 2名은 小學校 卒業, 나머지는 모두 無學으로, 書堂이나 家庭에서 漢文과 한글을 教育받았다.

住民의 生業은 주로 農業으로 1家口當 平均 20마지기의 農土를 所有하고 있고 30家口 전수가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主要 밭작물은 고추와 콩, 감자를 栽培하고 있었다.

마을 住民의 數나 年齡分布는 50-60代가 主流이고 代替로 다른 農村과 같이 老齡化 現狀이 있어 마을 住民들은 농사지를 사람이나 初喪이 나도 喪輿를 맬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와 했다. 老人들의 경우 子女들이 職場을 따라 外地로 나가 老人 혼자 혹은 老夫婦가 함께 살고 있거나 나이든 姑婦가 함께 살고 있으며 過去와 같이 3代로 構成된 家族은 드물었다.

마을내에 醫療機關은 없었고 가장 가까운 醫療機關은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保健診療所가 있었다. 教育

機關으로는 마을내에 全校生 200餘名의 國民學校가 1個 있었다.

現地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有名한 절이 있으며, 住民들은 그곳을 주로 찾고, 마을내에 精堂이나 巫堂은 없으며, 마을 入口에 조그만 禮拜堂이 있어 이곳이나 隣近 住民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住民들은 儒敎의 慣習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佛敎儀式이나 土俗信仰 등이 住民들의 思考와 行動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

#### 나. 研究對象者 保護

本 研究對象者는 우선 老人代表者께 研究의 目的을 說明한 뒤, 老人會 會議를 거쳐 同意를 받은 후 實施하였다. 面接은 研究目的 이외에는 使用되지 않고 該當 마을이나 對象者의 人權에 대하여도 전혀 公開하지 않을 것을 約束했다. 특히 마스크의 偉力을 알기 때문에 不必要한 露出으로 인한 성가심이나 環境汚染을 몹시 걱정하였기에 모든 地名을 公開하지 않았다.

#### 2. 研究 調查者의 訓練過程

本 研究에서 使用된 民俗科學의 接近法은 研究課題를 보다 制限된 問題를 바탕으로 하여, 對象者들의 行態를 編成하고 經驗을 解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研究主題에 適合한 面接質問 및 觀察의 現地調查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本 研究者는 1989年 10月에 민속과학적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팀인 成人看護學 教授 1人, 精神看護學 教授 1人, 地域社會看護學 教授 1人, 成人看護學 教室 研究員 2人 및 成人看護學專功 碩士過程生 1人으로 構成된 研究팀에 合流하여서, 研究主題에 契合을 맞추어 參與觀察法과 非指示的인 面接要領을 3個月間 訓練 받았으며, 訓練 중에 重要 討論內容은 實際 研究狀況에서 提起될 수 있는 研究方法論上的 問題들이었다. 訓練의 마지막 段階로 現地調查練習을 위하여 1989年 12月 10日부터 1990年 1月 6日까지 서울 外廓地域 老人을 對象으로 參與觀察 및 審層面接을 Tape recorder와 記錄을 中心으로 蒐集하고, 이 內容을 對話體 그대로 글로 옮긴 뒤 健康慣行과 관련된 內容을 拔萃해 내고, 漏落된 것은 다음날 다시 訪問하여 補充하는 方式을 취하였으며, 이 過程을 거치면서 對象者와의 接近法과 研究主題에 벗어나지 않는 質問法을 指導받고 論議하면서 익숙해져 갔다. 특히 參與觀察로부터 모은 資料의 分析은 새

로운 質問을 찾아내는데 重要하므로 그때 그때 繼續의 인 反復作業을 요함을 알았고, 그때 錄音된 資料와 메모 內容을 基礎로 面接과 觀察技術에 대한 分析, 評價하는 過程을 통하여 民俗科學의 研究方法를 익혔다.

### 3. 資料蒐集課程

#### 가. 資料蒐集期間

本 研究에서 資料蒐集은 指導教授의 指導下에 1989年 12월에 文化의 變化를 심히 겪고 있는(過去는 農事를 生業으로 從事하다 市의 區劃整理로 特別市로 編入되면서 現存 文化施設의 惠澤을 받고 있는 地域住民) 서울 外廓 地域 原住民을 中心으로 1個月餘 事前調査를 實施하여 參與觀察 및 調査方法을 익힌 뒤 實施하였다. 實際 活用된 資料는 1990年 1月 8일부터 3月 末까지 總 82日間 所要되었다. 1차 集中的인 資料蒐集期間은 1月 8日에서 18日까지 11日間으로 이 期間에 錄音, 觀察, 記錄된 內容을 對話體 그대로 글로 옮긴 뒤 이를 分析하였으며, 觀察事項이나 面談시 漏落되었거나 不足한 것을 2次로 訪問하여(2月 8日에서 2月 12日까지) 補完시켰고, 마지막 段階에서 또 不足한點이 發見되어 3次로 3月 29日에서 3月 31日까지 訪問하여 完成시켰다. 또한 資料分析 途中 簡單히 解決할 수 있는 疑問事項은 直接 市外電話를 통해 確認하였다.

#### 나. 資料蒐集方法

本 研究는 對象者들의 全生涯 過程을 통한 健康慣行을 參與, 觀察과 面談을 통해 確認할 수 있는 徹視의 文化記述에 속하므로 짧은 期間에 可能하며(Wing, 1989) 이미 對象者들과의 隔意없는 對人關係가 어느 程度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生活를 같이 하는데 어색함이 없었다. 그리고 資料의 妥當度를 높이기 위하여 本 研究의 研究支援者와 한 組가 되어 參與觀察 및 現地노트를 作成하였다.

특히 '參與觀察 및 面談時 對象者들의 氣分을 充分히 考慮하면서 加給의 便安한 狀態를 維持하기 위하여 試作前에 반드시 차나 막걸리 등 飲料水를 마시면서 完全히 安定된 雰囲気에서 夫婦를 中心으로 參與, 觀察 및 面接을 實施하였다.

#### 4. 面接 및 參與觀察方法

우선 指導教授로 부터 非指示의 面接要領을 訓練받은

후 實施하였다. 面接은 主資料提供者(key informant)인 老人會 代表者의 案內에 의해 研究者가 直接家庭訪問을 통하여 夫婦를 對象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本 研究者의 緣故地로, 특히 우리 韓國人의 同族, 同鄉人에 대한 사랑이 至極하므로 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어 그들의 率直한 對答을 얻기에 아주 좋았다.

面接時는 對象者의 言語를 그대로 빠짐없이 記錄하기 위하여 對象者의 同意下에 Audio tape recorder를 使用하였다. 또한 應答者가 緊張하지 않고 자유로이 對話를 할 수 있도록 日常的인 對話에서 부터 시작하여 점점 問題領域을 얘기할 수 있도록 誘導하였다.

質問內容은 一生을 통한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알고져 하는 內容을 直接의 으로 質問하는 것이 아니라 日常的인 얘기, 즉 날씨라든가 最近 近況이라든가 이 마을에서 그 瞬間 研究者가 느낀 것이라든가 등의 對話에서 全生涯 過程을 얘기하는 途中, 要點이 되는 것을 拔萃, 메모하였다가 다시 質問하거나, 다음날 訪問하여 質問하는 式이었다.

대체로 舉論된 內容은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무슨 건강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셨는데, 사시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대체로 어느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평소에 어떻게 몸소 행해 오셨는지요?" 등의 對話를 이끌어 나갔다. 이상의 對話가 반드시 公式的이고 順序的으로 登場하는 것이 아니라 對象者가 自己의 一生을 自然스럽게 이야기식으로 表現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過程에서 核心되는 內容이 나올 경우, 이 部分에서 具體的으로 質問하여 確認하였다. 當日의 面談이 끝나면 宿所로 돌아와 recording 內容, 觀察事項, 메모 등을 記錄하고 分析하여 그 內容을 中心으로 대개 다음날의 質問內容을 計劃하였다. 그렇지만 研究者의 전일 計劃대로 意圖的인 進行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觀察事項은 面談 前中後, 그들의 態度, 習慣的인 日常 등, 個人的인 것에서 부터 마을 全體의인 雰圍氣 등, 間接, 直接的으로 認知되어지는 事項들로써 質問이 必要한 것은 面談시 合流시켜 確認하였다. 예를 들면, 어느 面談시 班長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으고 恭遜히 앉아서 相談하는 態度를 보고, 다음날 確認한즉 이곳 모든 이는 年長者께 相讓시 반드시 이러한 態度임을 알았고, 그 이후에도 繼續, 觀察되었으므로 이곳 住民들

의 精誠스런 마음을 굳이 表現하지 않아도 生活習慣으로 몸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訪問地에 머무르는 동안 老人들의 새벽에서 밤까지의 日常生活를 觀察하여 審層面談의 內容을 客觀化하도록 하였다.

## 5. 家庭訪問의 記錄

資料蒐集을 위한 對象者의 面談은 家庭訪問을 하여 Audio tape recording과 本 研究者나 研究支援者의 觀察과 記錄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家庭訪問 順序는 主 資料提供者의 案内를 받으면서 優先 夫婦를 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끝맺지 못한 內容은 再訪問時間을 約束하고 再次 訪問을 하였다. 또한 혼자된 할머니는 같은 마을단위의 共同體 意識下에 살아왔으므로 記憶의 促求와 漏落을 防止하고 서로 相互補完의으로 便宜하게 對話할 수 있도록 두분을 同時에 實施하였다.

面談時間은 1일에 30分에서 4時間 以上까지 多樣하였으며 面談이 오래 持續되는 경우 老人의 體力를 考慮하여 中間에 休息時間을 가졌다. 面接은 午前 10時부터 12時까지의 午後 2時부터 6時까지 이루어졌다. 한 對象者에게서 充分히 資料를 蒐集할 때까지 反復 面談하였다. 매일 調査가 끝난 후 밤에는 그날의 面談과 觀察에 대한 分析和 評價 및 現地調査日誌를 日記式으로 쓰고 다음날의 調査內容 및 接近法들을 構想, 計劃하였다.

## 6. 資料 分析方法

Tape recoder에 錄音된 資料는 記錄된 것과 比較하면서 對象者의 言語의 表現 그대로 글로써 記錄하여 個人別 冊子를 마련하였다.

現地調査資料는 一般의으로 妥當度는 높다. 그러나 研究者의 偏見을 排除하고 信賴度를 높이기 위하여 研究者 자신과 碩士課程을 마치고 같은 教室에 勤務中인 本 研究支援者에 의해 同一한 原資料를 가지고 각기 內容을 記錄하여, 두 사람이 一致된 內容으로 構成된 健康慣行에 관련된 文章을 中心으로 Card를 作成하였다.

作成된 카드 및 範疇화된 內容은 看護學 教授 4인과 言語學 專攻教授 1인의 諮問을 구하였다. 範疇에 따른 原資料는 여러개가 同一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을지라도 言語의 特性과 表現의 意味와 聯關되어 內在해 있는 脈絡을 同時에 把握하고자 對象者들의 語彙表現 그대로를 모두 列舉하였다.

原資料의 具體的인 分析課程을 보면 :

第1段階 : 健康慣行에 대한 觀察事項이나 現地調査日誌, 錄音內容을 對象者語彙 그대로 card 作成(136個의 card 作成).

第2段階 : card에 收錄된 語彙의 意味를 새우리말 큰 辭典(1981)에서 確認.

第3段階 : 語彙는 다르지만 同一한 意味를 나타내는 card끼리 分類.

第4段階 : 分類된 card의 特性에 따른 範疇化(5概念으로 範疇化).

第5段階 : 範疇화와 관련된 屬性(意味의 成分)을 體系的으로 組織하였다.

이 段階는 論議의 餘地가 가장 甚한 段階로 研究者의 觀點이나 地方特色의 語彙의 意味 理解度에 따라 左右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根本的으로 語彙의 意味와 表現의 意圖를 充分히 把握한 후 組織하였다. 즉 예를 들면, 範疇화된 屬性의 分類에서 “삭이다”, “참다”에서, 삭이다는 “홍분되거나 긴장된 심리상태를 스스로 풀어서 가라앉히는 것”이고, 참다는 “제 마음을 스스로 억눌러 어려운 고비를 견디어내거나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뎀을 사카야 참고 견디는 기라”라는 應答은 삭이는 作用이 優先하므로 “삭이다”는 意味成分에 包含시켜 組織하도록 合意하였다.

## Ⅲ. 結果 및 論議

이 研究는 研究者가 觀察者로서 그들의 世界에 들어가 그들의 習慣, 意識, 象徴을 探究하기 위하여 觀察, 討議, 質問, 確認 등을 통해 對象者들로부터 얻어진 資料를 分類, 探索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基層文化, 즉 思想的 思考原型에 內在되어 있는 社會文化的 背景과 接脈된 健康-疾病에 따른 그들의 健康慣行이 價値化되어 드러내진다.

여기서 比較的인 觀點을 갖는 것은 文化間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發見하여 어떤 特定集團의 社會文化的 特性을 分明히 밝혀내고자 함이며, 이로써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偏見을 除去하고자 함이다. 또한 人間 社會에 內在해 있는 健康과 관련된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 社會文化에 따른 接近方法이 다를 수 있으며 多樣하다는 것을 周知시킴으로써 文化的 相對性과 文化相互間의 理解를 도모코자 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이 얼마나 彪大하며, 作爲的이고, 誤謬를 범할 수 있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지만, 看護

學이란 人類의 始作에서 終末까지 人間을 中心으로 時間的으로는 過去, 現在, 未來의 連續線上에 놓여있고, 空間的으로는 東西의 聯關性에 의한 相互交流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므로, 時間的, 空間적 人間의 行態나 模襲을 正確히 認識하고 評價함은 必然의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人間은 祖上 代代의 經驗의 沈澱物로 태어나 現在의 나 속에는 “過去”, “現在”, “未來”가 함께 담겨져 있으므로 나를 통한 祖上들의 智慧를 살펴보는 洞察力과 未來를 直視하는 透視力이 우리 保健管理者에

게도 要求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個人的 價値 信念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그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文化 등 多樣하겠으나 本 研究의 方向과 가장 適合한 우리 固有의 傳統文化思想을 中心으로 把握하고자 한다.

研究結果로 나타난 屬性에 따른 範疇은(表 1 參照)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 “과하지 않게 산다”, “自然 그대로 산다”, “서로 더불어 산다”, “열심히 산다”의 크게 다섯으로 分類되었으며, 이들 個別的 範疇들을 中心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들의 건강관행

범 주	속	성	근 거 자 료
I.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	1. 마음을 잘 먹도록 다스린다.	심기를 바로잡다.	자신이 노력을, 병이 안나도록 심주를 바로 갖도록 노력한다. 심주를 바로 갖고, 심주, 적 맥의 지동이 있어야 하고 바로 서야 해. 심주를 바로 갖는다. 화가 병의 근본인기라. 그래서 심지를 바로 잡아야 돼. 심지를 편안하도록 다시리야제.
		삭이다.	우트튼가 맥을 사쿠고 지 하고 시픈대로 안하는 기라. 섬섬하거나 우울한 맥을 우트튼가 사쿤다. 화 안내고 사쿤다. 지 맥을 사카야 참고 견디는 기라.
		참다	내 심적으로는 고통이 짚개 있어도 부모님한테는 고통을 안디리야지 하고 참고 사는 기라. 참을 줄 아는기 좋아. 뭐든지 참는 맥가짐이 중요한기라. 하고 집은거 참고. 사시로 그 맥이 그 맥이아 되는기라 뼈딱뼈딱 하든 안 돼. 높은 데가 잇시든 낮은 데도 잇는진께, 어려벌때일수록 고비를 잘 넘구도록 맥을 묵는기라. 급하거나 어려벌때 조급하든 변을 당한께 우트튼가 지다려야 돼.
		선하다.	사시로 어진 맥을 묵고 사는기라. 그날이 그날인거 맨치로 선한 맥을 묵어야 돼. 지가 선한 맥이아제 다른기 무신 소용잇노.
		이해하다.	뭐든지 이해하는 맥가짐이 중요한기라. 사시로 넘보다 한발짝 물러서서 양보하든 돼. 넘보다 짚개 손해본다 시프문서 살아야 돼. 뭐든지, 우쨌든지 양보하는 맥을 묵어야 돼. 서로 집안들 찌리도 감싸고 양보해야 되는기라. 우쨌든가 성질이 무던해야 되는기라. 넘 승은 안봐야 돼.
		탐 안하다.	엄씨 살아도 녀의 꺼 탐 안하고 사는기라. 아우리 배고파서 등가죽에 붙어도 녀의 꺼 탐 안하고 안치다보고 사는기라. 놀부 욕심 안부리면 되는기라. 맥속에 욕심이 들어가든 안되는기라.
		편안히 하다.	사시로 맥을 조신하고 안정되게 다시리다. 부모님, 선조님께 받는 거를 지 스스로 잘 지키고 편안히 다시리야제. 병이 나든 우쨌든가 병에 유리한 거석으로만 생각하고 편안하도록 해야되는기라. 맥을 편하게 묵어야 되는기라.



범 주	속 성	근 거 자 료
	2. 기쁜 마음을 갖도록 다스린다.	<p>사시로 기쁜 맘을 지니도록 해야 돼.  질겨운 맘이 업시몬 죽은기나 같은기라.  썩을 덜 썩는다.  이전사람이라 말도 자볼자볼 묻하고 그러지만 그럴 수 없는 맘으로 부인네(안사람)  썩 안썩히는 남정네를 만나는기라.  자숙들 썩 안썩인게 사시로 맘에 근심이 업는기라.  식구들이나 집안들찌리 우트튼가 안 시끄럽고 좋기 지낸다.  부부찌리 금실이 좋으면 오래 사는기라.  내 앞에 아무일 업시 잘 살아 와진게.  죽 지냄시렁 험한 꼴 안본게 그기 보약인기라</p>
	3. 정성스런 마음을 갖도록 다스린다.	<p>아들한테고 어른들께는 사시로 정성스런 맘을 떼문 안돼.  아들들 잘 되게 해 달라꼬 사시로 비는 맘으로 살제.  삼신할매가 돌봐 준다쿤께 빌어야제.  자숙들도 우째튼가 어마이가 보지란하고 성심으로 간수해야 돼.  삼정성이 맞아야 되는 기라(본인+약 대리는 이+약 지어주는 이)  우트튼가 조상님께 정성을 디리야 돼.  선조님께 맏씀이 부족하면 안되는 기라.  조상님의 돌보심과 정성디리는게 맞아야 돼.  사시로 동이 트면 물 질러다 비는기라.  그럴 수 없는 맘으로 공디리고 정성을 쏘아야 되는기라.  때마다 공을 디리고 빌어야제.(정월 대보름, 2월 영동 : 바람울림)</p>
II. 과하지 않게 산다.	1. 알맞게 먹는다.	<p>잡식을 묵은게 몸에 좋은기라. 우리네 쌀밥이 오데 있노. 순전 죽밥, 감자밥, 보리밥 묵었제.  썩밥이 참 몸에 좋은기라. 좋다고 묵은기 아이고 업써서 묵은기지만.  삼시 세때 뜨거운 밥 해 묵은기 보약인기라.  삼시 세때 꼭꼭 묵은기라.  배부르게 안묵고 모지랜다 시플 때 안묵는기라.  이전에 업써서 몬 묵어 주린 배가 고대로 양이 줄어서 쪼께 묵는기라.  음식은 과하다 시프면 안되고 부족하다 시플 때 안 묵어야 탈이 안 생기제.  몸에 해롭다쿤는 음식은 꼭 참고 안 묵어야 돼.  몸에 안 좋다쿤몬 묵고집어도 꼭 참아야제.  우트튼가 묵는게 탈인게 조심하는기 제일인기라.  아침 식전에 옛(단것)은 절대 입에 안대야 되는기라.  이전에 모두 몬 묵어서 병이 난께, 잘 먹어야 돼.  누룽지에 보양분이 다 있다쿤더라.  음식은 좋다 나쁘다쿤고 쫄쫄끼리몬 안되는기라.  무조건 묵고 시프면 과하지 않게 묵는기 좋아.</p>
	2. 적당히 움직인다.	<p>혹에서 농사일 하는게 운동인기라.  문 창살이 뿌여지기 전에 일어나서 쇠죽꺼리고, 쇠 돼지 둘러 보고 들에 나가는기라.  사시로 게으름 안 피고 몸을 움직끼리야제.  사시로 꿈지럭 끼린다.  우두커이 안 누버 있는다.  누버있시몬 깜깜해서 일어나 땀진다.  들에 사시로 나가 일하니께 그제 좋아.  지금도 집일, 들일 내가 하고 꿈지락끼리제.  우트튼가 걷는 일이 많으니께.  이전에는 차가 업신께, 어지간하면 걸어 땀진다.  식전에 들에 한바꾸 돌아야 입맛이 땀기는기라.</p>

법 주	속 성	근 거 자 료
	3. 행동을 삼가 한다.	<p>몸을 함부로 안 굴린다.                      썰때기 없는 행실은 생각도 하지도 안하는 기라.                      몸에 안좋다 쿠는 거는 피하는기라.                      병에 안 좋다 쿠는거는 행동도 묵는거 또 안해.                      병에 유리한 거석으로만 행동하는기라.                      내방 출입 삼가고.                      내외간에 잠자리에 중사 해야 족다 시픈거 그거 극복하는 기라.                      문란한 생활하믄 안되는 기라.</p>
	4. 짧은시간 폭 깊이 잔다.	<p>잠 잤다 쿠른 일어나는 꼭 그 시간인기라.                      초 저녁에 자서 첫 닭 울기 전에 일어나는 기라.                      여러 시간 많이 자는기 아이고, 잤다믄 꼭 일어나는 시간이 같은기라.                      이전에야 잠잘 시간이 오데 있노. 바느질 하다보믄 고대로 자서 문쌔이 뿌여믄 일어나는 기라.                      여름에는 질쌔하고, 겨울에는 바느질 하니라고 잘 시간이 업써, 그래도 새벽녘이믄 귀신거치 지 시간에 일어나는 기라.                      잘 때는 몸이 곤한께 죽은거 거치 자빠는 기라.</p>
Ⅲ. 자연 그대로 산다.	1. 자연 그대로 먹는다.	<p>농약 썰 필요가 업는감, 밤을 많이 묵어서 병이 도망가.                      농약 안한 음식들을 묵어야 돼 : 씨래기, 산나물, 김치, 콩지름, 된장국                      김치 걸 이파리를 많이 묵어서 : 해를 많이 봐서 그런기라.                      농약 안한 야채들을 직접 숨겨서 묵은개내 조은기라.                      고기 업써도 발에 숨순겨 금새 빼다 묵은 그계 보약이제.                      여기 산나물이 조쿠만, 많이 묵어서 그런가?                      제철에 야채를 말렸다가 묵는기라 : 무시늬, 고추늬, 고구매 쫄거리, 쑥, 우리네 짐치, 동집치 만큼 조은기 오데 있노 씨래기 국이 지금도 괴기국보다 조은기라.                      여자는 우트튼가 미역국 많이 묵는기 조아.                      아침에 일어나자 찬물을 한모금 마시는게 조은기라.                      지리산 밑에서 나오는 이 조은 물을 평생 묵고 살아서 이물이 조아서 병이 업는 가비라.                      소젖이 아이고, 오매 젓 묵고 커서 조은기라.                      억지로 젓이 안나오고로 하믄 그계 병이 되는기라.</p>
	2. 자연 그대로 누린다.	<p>아침 일찌거이 일어나믄 찬 바람이 겨울에도 쑥이 시원해.                      새벽 일찌거이 일어나가믄 정신이 바짝 들고 기분이 조아지는기라.                      여기서 숨쉬고 사는기 이게 보약인기라.                      들에 나가 일한께 사시로 해를 많이 보는기라.                      여기는 해하고 더 가까븐 개비라. 해를 많이 보믄 조은기라.                      여기 지대가 물 조코, 산 조코, 공기도 조코...                      지형적으로 재해가 업써야 돼.                      이전에 삼베, 메영베우이 조은기라.                      쪽웃이고 곁에 웃이고 모다 우리께 조아.                      아를 많이 놓은께 몸에 나쁜 피, 꾸정물이 다 빠져나와서,                      죽을 운에 아를 놓는데 그래 우리네는 말쿹 다 노은기라. 그런개내 죽을 고개를 넘기 뺨기라.</p>
Ⅳ. 서로 더불어 산다.		<p>기쁨으로 서로 마실찌리 일한다.                      사시로 질겨운 맴으로 서로 푸마시 일을 한다.                      마실에 크고 작은 일들 소상히 서로 상의해서 고루 이사존중해가꼬 결정한께 모두 맴 안상하고,                      이웃찌리 서로 우하고 하는 것이 다시 업는 맴이라.                      사람사는 도리와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니께 우선 맴이 편코, 고마운기라.                      이 마실사람 모두가 님이 아이고 친 동기 곁애.</p>

법 주	속 성	근 거 자 료
V. 열심히 산다.		<p>조상님께 안부끄러블라고 조심하면서 보지란히 살았제.</p> <p>뭔가 맴으로 작심해가고 꼭꼭 살았제.</p> <p>우째든가 열심히 일해가고 아들 안 굶길라고 이 목표로만 살았제.</p> <p>목을끼 업은끼 일하느라 다른 잡맴 목을 수가 업는기라. 일할라고.</p> <p>자숙들 밥 좀 배불리 먹일꺼라고 다른 생각 업시 일만 한기라.</p> <p>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볼꺼라고 소갈이 일만 했제.</p> <p>삼시 세때 목는기 심들어서 그 심 좀 벗어날라고 참 일 많이 했는기라.</p> <p>왜정놈들 한테 죽으른 지니께 이길라고 만 맴 목은기 업고 보지란히 살았제.</p> <p>뉘를 우짜고 살아야제 하고 사시로 잤시렁, 그걸 조차서 하루하루 지낸기라.</p>

參與觀察과 面談에 응한 對象者들의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反應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主流를 이루는 傳統思想을 살펴보면 土着思想인 ‘弘益人間’의 論理的 精神속에 人類愛와 博愛의 精神이 있어, 특히 天意에 의한 人間愛는 心을 德으로서, 仁이나 兼愛와 같은 무조건 人間愛임을 알았다. 여기에 外來文化인 儒·佛·禪 思想이 誘入되어서 우리 民間信仰과 習合되어 相互補完的으로 우리식의 土着化가 形成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과하지 않게 산다’로, 이는 韓國人의 傳統文化思想에 內在하고 있는 傳統倫理, 價値觀의 發露로 생각된다. 우리의 傳統倫理思想은 檀君의 弘益人間이란 建國理念 속에 胚胎되어, 知德을 敬비한 바람직한 人間價値觀이 確立되어 자기 主體意識이 서 있는 義理精神으로 보고 있다. 즉 당시 支配的인 性理學者들은 人間內面的인 價値問題에 關心이 커서 人間의 性理 그리고 善惡과 正邪와 관련한 義理精神에 重點을 둔 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範疇는 ‘自然 그대로 산다’였다. 自然現狀은 人間의 行爲와 直接的으로 관련되어 있고, 人間의 行爲는 自然의 秩序나 意志로 부터 벗어나거나 拒逆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傳統社會의 普遍的인 認識으로서 傳統文化思想의 典型的인 發見할 수 있었다. 이는 道教 및 儒教思想의 影響으로 인한 自然觀과 神觀에 의한 것으로, 人間은 누구나 弱, 虛, 靜, 無와 같은 態度로 살아가야 하며, 同時에 無爲自然의 態度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사순, 1984). 특히 道家에서는 萬物의 根本인 道를 중히 여기면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道를 본받고 道는 自然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老子의 道는 行爲의 對象인 同時에 內容이며 平易하고 무리가 없으며 자연스러움을 意味한다. 老子의 自然思想은 사람의 作爲에 의한 不條理, 無秩序, 不調和를 否定하는 同時에 合理性, 秩序, 調和, 生成의

神秘 등을 肯定하여, 즉 存在의 本來的인 模範을 尊重하였다. 그리하여 道家哲學의 重要概念 중의 하나가 自然으로, 예컨대 自然이란 客觀的인 存在로서의 自然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作爲的, 強制力을 가하지 않고 單純히 自然에 맡겨진 狀態를 重視하였다(김용옥, 1985; 지교헌, 1986). 儒家에서는 人間形成의 基本要素는 精, 氣, 神으로 보고, 氣는 人間과 萬物을 形成하는 根源存在이므로(전경진, 1987), 先人들은 自然攝理에 入關한 養生術을 開發하여 現世의인 不老張生을 追求하였다. 즉 ‘氣는 一身을 周流하여 生을 維持시킨다. 모든 病은 氣에서 나며, 모든 通症도 氣로 인한다. 風이 氣를 상하면 疼通이 생기고, 寒이 氣를 상하면 戰慄이 생기고, 더위가 氣를 상하면 熱激이 생기고, 濕氣가 氣를 상하면 腫脹이 생기고, 燥한 것이 氣를 상하면 閉結이 된다. 사람이 氣로써 사는 理致는 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같으니 물이 混濁하면 고기가 여위고, 氣가 어두우면 사람이 病이 든다’, ‘賢인이 있으니 天地를 法하고 日月을 본받으며 強制로 星辰을 辨別하며 陰陽을 쫓고 四時를 分別하며 上下를 따라서 道를 깨달으려 하니 亦是壽命을 더할 수 있다’, ‘道家에서는 修養攝生으로 精·氣·神을 耗損하지 말아야 한다며 답이 울 무렵에 일어나서 深呼吸을 하고 齒를 마주치며 精神을 한데 모아 火侯의 運搬을 수십번하면 自然히 身體가 和暢하고 血脈이 流通하게 된다’고 東醫寶鑑에 收錄되어 있다. 이는 宇宙에 속해 있는 우리 人間이 自然의 法則을 遵守하며, 大自然 안에 散在해 있는 氣를 吸入하므로써 無病長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先人들은 人力이나 人智는 自然의 힘이나 攝理에 優越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삶 의 智慧는 우리 人間이 拒逆할 수 없는 힘, 즉 運命으로 불리워지는 超越者인 自然의 神秘, 攝理에 順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김재은, 1987). 이러한 思考原型이 現代 科學文明의 利

器에 얼마간은 밀려나는 듯하였으나 外形의 이었고 一時의 이었을 뿐, 그대로 傳承되어 ‘自然 그대로 먹고’, ‘自然 그대로 누린다’는 屬性이 있음을 發見하였다.

다음 범주는 ‘서로 더불어 산다’로, 사람이 사는 道理와 理致를 아는 마을 사람끼리 기쁨으로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돕고, 相議하고, 위하고, 아끼면서, 健康 및 풍농과 마을 共同體의 繁榮을 約束하는, 그들의 가장 基本의 인 삶의 目標가 되고 있다.

즉 마을이란 單純한 집들의 集合體가 아니라 自然的으로 오랜 歷史를 지닌, 대부분 血緣을 中心으로 한 氏族이 모여사는 곳으로, 移動이 아닌 定着生活로, 生活次元에서 서로 生産의 根本手段이 되는 協同을 하는 共同體인 것이다. 그리하여 生業의 豐饒와 健康 및 無事泰平을 비는 目的에서 그 마을 單位의 共同體 統合의 紐帶를 基盤으로 協同하는 文化的, 社會的 共感帶를 實現할 수 있는 信仰과, 儀禮, 놀이, 일 등이 ‘부락慣習’이나 ‘集團行動의 民俗’으로 傳承되어 왔다(임재해, 1987; 김동욱 외, 1988)〈表 2, 3 參照〉.

〈表 2〉 마을 單位의 集團民俗行事

종 교 성	생 산 성	유 회 성
통과 의례	두 레	민속연회
부락제	품앗이	민속놀이
부락굿	계	농악

〈表 3〉 마을 單位의 民俗行爲樣式에 따른 分類  
觀念的, 精神的(←————→)實際的, 肉體的

신 앙	의례	놀이	노동
동신신앙 (동신제 별신굿)	통과의례 (혼례, 갑례 상례)	민속놀이 (줄당기기 지신밟기)	공동노동 (두 레 품앗이 상 두계)

이러한 共同體 意識은, 實際 共同體 밖(이웃마을)에서 볼 때는 排他的이고, 그 內部에서 볼 때는 가장 協同의 이고 統一의 인 性格이 매우 濃厚하여 外的인 挑戰에 능히 堪當할 수 있는 抵抗力과 힘을 자체적으로 키움으로써 더욱더 凝集力과 結束力은 強化되었다(임재해, 1987). 이러한 生活態度는 마을 構成員의 意見을 尊重하면서 相議하는 가운데 可能的한 것이지, 一個人의 一方的인 執行으로는 不可能하리라 본다. 예컨대 儒敎의 影響으로 忠孝와 福의 이념을 근간으로 가부장적, 혈연공동체의 生活태도 내지 價値觀으로 갖는 우리 韓國國民에

게 여러가지 歲時風俗이나 通過儀禮 및 共同勞動은 너무나 自然스럽게 삶의 깊숙히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範疇는 ‘열심히 산다’로, 이 ‘熱心히’는 “어떤 일에 골몰히 힘쓰는 마음으로”란 意味를 가지고 있다(신기철, 1981). 즉 이들이 熱心히 살아온 理由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자식들 굶기지 않고, 그럼으로써 자식을 養育하므로써 代를 잇고 祖上들께 부끄럽지 않은 後孫임을 자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러한 뚜렷한 삶의 目標意識을 세워서 하루하루의 忍苦와 勞苦를 견디며 살아오게 하였다.

특히 道家에서 無爲自然을 보면, 사람은 땅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安全을 취하게 되고, 땅은 하늘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全載를 취하게 되고, 하늘은 道를 어기지 않음으로써 全覆을 취하게 되고, 道는 自然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그 性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윤찬원, 1988).

이러한 一連의 規範이 바로 道家의 倫理의 特徵인 聖人으로서의 道를 다함이며, 여기서 열심히 사는 생활이 바로 聖인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中庸에도 誠은 하늘의 道이고 誠하려는 것은 사람의 道라 하여, 이에 權近은 이른바 天人을 合一하여 하나로 하는 것이 誠一敬이라고 했다(안병주 외, 1986). 要約하면 天德이 誠으로써 사람에게 知覺되어 그것이 人間의 日常的 行爲에 있어서는 敬에 의해 實現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敬은 自己形成에 관련된 實踐原理 및 修養原理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삶 자체가 敬哲學에 適合한 至人の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誠)되면 뜻(志)이 저절로서는 法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誠은 志의 核心이 될 뿐 아니라, 또한 誠實을 모든 活動의 原動力이요, 努力의 根源이 되는 것이다(손인수, 1977).

특히 우리 祖上들은 옛부터 좁은 農土에 水理灌溉 施設이 圓滑하지 못했기 때문에, 自然災害에 몹시 敏感하였으며, 風土의 條件, 天然資源의 不足, 生産力의 貧弱으로 많은 經濟的 試練을 겪어왔다(윤태림, 1971; 1981).

따라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關心이 至大하여 民謠속에도 먹을 食糧에 대한 걱정이 많이 담겨져 있으며, 表現中에 “먹이다”, “먹다”가 많으며(이어령, 1977), 인사말 중에 서로 만나는 時間帶를 中心으로 ‘아침, 점심, 저녁 드셨어요?’라는 人事를 나누었고, “家難 救濟는 나라도 못한다”, “家難이 죄다”, “보리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등의 속담이 나오게 되었다.

以上으로 韓國人의 慣習이나 習慣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健康慣行을 確認하여, 우리 傳統的文化思想속에서 解釋學의 探索해 본 結果, 수많은 科學的 利器 및 外來文化의 誘入을 통한 歷史的 變遷過程을 거쳤음에도 不具하고, 우리 民族의 思考原型은 主體的 脈을 여전히 維持, 傳承하고 있는 文化的 特性을 確認하였다.

특히 儒敎의 絕對的인 影響을 받은 韓國人의 思考方式이나 가치관은 “敬은 一心의 主宰로서 萬事의 本根”으로 마음을 主宰하고 制御하는 것은 敬인데(敬卽心), 그러므로 마음은 萬事의 根源이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마음은 一身의 主宰”라는 思考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오로지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만 孝道와 恭敬과 崇拜精神이 發興되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行動으로 制御하는 삶이 可能하며, 自然 그대로 이웃과 더불어 열심히 사는 삶이 維持되며, 이러한 行態에 佛敎的, 道敎的, 民間信仰의 生活태도 및 價値觀도 影響을 미쳐서 慣習的인 삶의 行爲로 繼承되어 健康(疾病)을 위한 健康慣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IV. 結 論

本 研究는 韓國 長壽마을 老人을 對象으로 그들의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하였다. 이는 곧 韓國 傳統文化 思想속에서 鎔解되어 있는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國民에게 文化的으로 一致되고 滿足스러운 健康敎育과 健康慣行을 指導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目的을 두고 實施하였다.

本 研究의 理論的 基盤은 橫文化看護理論이며 研究方法는 質的方法인 民俗科學的 研究法에 의한 參與, 觀察 및 面接法을 통한 記述研究이다. 研究對象者는 男子 7名, 女子 11名으로 모두 18名이었고, 資料 蒐集期間은 1990年 1月 8日부터 3月 末까지 總 82日間이었다. 資料 分析은 觀察, 記錄, 錄音을 中心으로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과 관련있는 內容을 찾아내어 韓國 傳統文化 思想에 立脚하여 屬性끼리 分類, 範疇化한 후 韓國 傳統文化 思想과 比較文化的으로 論議하였는데, 研究 結果를 要約하고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對象者의 最優先 健康慣行範疇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로 나타났으며, 그 屬性은 ‘마음을 잘 먹도록 다스린다’, ‘기쁜 마음을 갖도록 다스린다’, ‘精誠스런 마음을 갖도록 다스린다’였다.

이러한 健康慣行을 하게 하는 思考의 原型에 位置하고 있는 價値觀은 土着思想인 ‘弘益人間’의 倫理的 價値

觀 및 外來文化인 儒·佛·禪 思想이 誘入되어 우리식 의 土着化를 形成하였다. 특히 退溪哲學 思想의 影響으로 “마음은 一身의 主宰”고, 人間의 意識이나 行動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의 作用으로 생각하고(思) 배우는(學) 狀態가 나타나는데 이를 “敬”境地라 하였다. 이 敬은 人間의 有機體的인 作用 一體를 制御하기 때문에, 결과 敬은 人間의 心身의 모든 活動全體를 管掌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間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斷續하고 保存하지 않을 때 마음이 衰退하고 病들게 되면서 身體的인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佛敎에서는 解脫의 境地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道敎에서는 마음이 上宰와 같이 神이며 모든 것을 制御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사람의 마음은 無限히 流動的이며 豫測이 不許하기에, 끊임없이 갈고 닦고 斷續을 하며, 敎育받고, 學習되어야만 感情의 發興으로 인한 欲望, 氣로 인한 欲望의 늪에서 헤어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의 發露로 仁義禮智가 出現되어, 마음을 잘 먹도록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의 다스림을 위하여 民間信仰의 샤머니즘과 民間療法, 傳統 漢醫學 및 四象醫學에 基盤을 두고서 우리 固有한 健康慣行이 實施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2. 다음은 “과하지 않게 산다”로 屬性은 ‘알맞게 먹는다’, ‘알맞게 움직인다’, ‘行動을 삼가한다’, ‘짧은 時間 폭 깊이 잔다’로 나타났다. 이 역시 韓國人의 傳統文化 思想에 內在하고 있는 傳統倫理, 價値觀의 發露로 생각된다.

즉, 人間 內面的인 價値問題에 關心이 컸던 性理學이나 中庸을 보면 “喜怒哀樂이 發하지 않는 狀態를 ‘中’이라 하고 發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하며, 中은 天下의 大本이요, 和는 天下의 達道이며, 일단 中和가 設立되면 天地가 제자리를 잡게되고 萬物이 育成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情感인 欲望이 전혀 發動되지 않을 때 마음에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꼭 알맞은 狀態(中)이며, 이 中은 調和를 이루게 하여 情感이 發動되어도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狀態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狀態 維持는 하늘이 人間에게 附與한 本性을 따르도록 敎를 통한 道의 修養時 可能해져서, 알맞게 먹고 알맞게 움직이고 行動을 삼가하도록 注意하며, 짧은 時間 동안 깊은 熟眠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과하지 않게 사는 삶을 위하여도 우선은 마음의 다스림이 先行되었고, 다음으로 오랜 傳統으로 내려오는 固有한 習慣의 習生과 民間療法 및 傳統 漢醫學, 四象醫學에 根據

를 둔 여러가지 健康慣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음은 “自然 그대로 산다”로서 그 屬性은 ‘自然 그대로 먹는다’, ‘自然 그대로 누린다’로 나타났다.

이는 道敎 및 儒敎思想의 影響으로 인한 自然觀과 神觀에 의한 것으로, 人間은 누구나 弱, 虛, 靜, 無와 같은 態度로 살아가야 하고, 同時에 無爲自然의 態度를 취해야 하는데, 人間 形成의 基本要素는 精, 氣, 神으로 氣는 人間과 萬物을 形成하는 根源存在이므로 自然 攝理에 立脚한 養生術을 開發하여 現世의 人 不老長生을 追求하였다. 즉 ‘賢人이 있으니 天地를 法하고 日月을 본받으며 強制로 星辰을 辨別하며 陰陽을 좇고 四時를 分別하며 上下를 따라서 道를 깨달으려 하니 亦是 壽命을 더 할 수 있다’고 東醫寶鑑에도 收錄되어 있다.

따라서 自然 그대로 살기 위하여는 體內的 氣를 상하지 말아야 하며 自然에 散在해 있는 氣 역시 破壞하지 않은 채로 體內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體內的 氣管理는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며, 自然의 氣保全을 위하여는 信仰에 依存하거나 民間療法 및 漢方療法 특히 氣療法에 의한 여러가지 健康慣行이 實施됨을 알 수 있었다.

4. 다음은 “서로 더불어 산다”로, 사람이 사는 道理와 理致를 알고 和合해서 사는 것을 말하며, 家族, 親知 및 마을사람까지 기쁨으로 서로 돕고, 위하고 相議하며 아끼면서 健康 및 豐農과 마을 共同體의 繁榮을 約束하는, 삶의 가장 基本的이고 重要한 目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退溪思想의 忠孝와 禮의 理念을 近刊으로 家父長的, 血緣共同體의 生活態度乃至 價値觀에 의한 影響으로 後生이 前生에 대한 즉, 子息이 父母에 대한 報恩으로 시작된다. 人間이란 家庭→마을→社會→國家, 民族을 形成하는 大我意識을 가지며, 歷史傳統을 驅逐할 수 있는 것은 忠孝思想을 먼저 家庭에서 夫婦, 父母, 父子의 天倫이 維持되어서 마을의 共同體가 尊屬되며, 이 곧 自然의 理致에 順應하는 일이며, 「仁」의 根本이요 「德」의 實行으로 보았다. 家族이나 마을은 單純한 構成員이나 집들의 集合體가 아니라 血族이나 氏族을 中心으로 自然의 으로 오랜 歷史를 지닌 生活次元에서 서로 協同하는 血緣共同體이다. 佛敎에서도 孝의 思想을 볼 수 있는 바, 즉 人間의 現存在는 無數한 因緣의 恩惠로 可能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理想의 人間像의 人格의 屬性인 智慧로움과 慈悲로움은 主體의 自覺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곧 無我思想으로 되어서 「나」와 「너」의

區別을 超越하여 同體慈悲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家庭(夫婦, 父母, 父子), 마을, 衆生으로 넘어가 相對方에게 幸福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거나 함께 하는 삶이 可能했다. 이러한 共同體意識은 共同體 밖에서 볼 때는 排他的이지만, 그 內部에서 볼 때는 가장 協同의이고 統一의인 性格이 매우 濃厚하여 外的인 挑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抵抗力과 힘을 自體의 으로 키워 그 凝集力과 結束力은 대단하다. 그리하여 生業의 豐饒와 健康 및 無事太平을 비는 目的에서 그 마을 單位의 共同體 統合의인 紐帶를 基盤으로 協同하는 文化的, 社會的 共感帶를 實現시킬 수 있는 信仰과 儀禮, 놀이, 일 등이 ‘부락 慣習’이나 ‘集團 行動의 民俗’으로 傳承되어, 우리 固有한 健康慣行이 되고 있음을 把握하였다. 즉 이러한 行爲 속에는 기쁨이 있고, 休息과 娛樂이 겸비됨을 알았고, 그 效率性을 위하여는 ‘마음의 다스림’이 先行되어야 하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5. 마지막 範疇는 “熱心히 산다”로, 이 ‘熱心히’는 ‘어떤 일에 골똘히 힘쓰는 마음’으로 意味를 갖는 行動言語이다. 이들이 熱心히 살아온 理由는 家難으로부터 벗어나 子息들 굶기지 않고, 잘 養育하므로써 代를 잇고 그럼으로써 웃어른을 잘 모시는 것이 되며 祖上님께 부끄럽지 않은 後孫임을 當당하게 자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러한 뚜렷한 삶의 目標을 세워서 하루하루 살아움을 確認하였다.

이는 道家에서 無爲自然의 聖人이 마땅히 행해야 할 得道한 形像으로서 熱心히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退溪思想을 보면, 天德의 4德, 즉 시작하고, 繁盛하고, 거두어 들이고, 이룩하는 作用이 있어, 이 곧 人間이 마땅히 좇아야 하며, 熱心히 사는 것이 바로 誠을 다함인데 이는 天人合一에 의한 誠一敬이라 했다. 이 賢은 修己로써 自己 形成에 관련된 實踐原理 및 修養原理인데, 즉 熱心히 努力하는 삶 자체가 敬에 달하는 至人の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生物體가 그러하듯이 人間은 하늘과 땅을 떠나 살 수 없으며 天生地肉이라는 原理를 믿어왔고 人間은 이러한 原理의 支配에서 秋毫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天命을 지켜 天變地異를 막는 것으로 마음의 不安이나 生命과 財產의 威脅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祖上들은 勤勉, 誠實한 生活 및 삶의 目標에 대한 思考는 자신의 善이나 부지런함의 댓가로 하늘의 뜻을 拒逆하지 않음으로써 家難을 벗어나서, 子女나 祖上들께 반듯한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農業 이외에 다른 生業의 選擇 可能性을 갖지 못하였는데, 옛부터 좁은 農土에 營農技術 및 水理灌溉 施設의 未備로 自然 災害에 몹시 敏感하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關心이 至大하였다. 그리하여 民謠속에도 먹는 것을 主題로 한 것이 많고, 사람끼리 만남의 인사도 時間帶를 中心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지?”에 대해 서로 確認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祖上들은 자신의 善의 댓가로 家難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오로지 한 目標로 일을 하다보니 다른 邪念, 즉 嫉妬, 시기, 慾心 등이 없고 勤勉 誠實 또한 흠이 주는 眞理인 正直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健康으로 이어지는 健康慣行이 됨을 알았다.

6. 다음은 우리 基層文化의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과 多民族 集結體인 西歐 文化圈에 속해 있는 健康慣行을 比較文化的으로 살펴본 바, 固有한 文化적 特徵에 따른 健康慣行이 存在함을 把握하였다. 韓國人의 傳統文化思想은 儒敎, 佛敎, 道敎, 사머니즘의 影響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韓國人의 價値觀에는 傳統思想에 의한 강한 道德性이 內在하고 있어 儒敎(性理學)의 敬, 窮理, 誠, 中, 仁, 禮, 忠孝思想과 佛敎, 道敎, 사머니즘 등에 內在된 理念의 많은 部分이 保存, 繼承되어 韓國人의 思考原型을 形成함을 알 수 있었다. 즉 儒家에서 “天卽人”에 의한 “天人合一”思想이 形成되고, 敬에 기초한 “나”의 이른바 實存의 主體性이 確立되었다. 그리하여 人間의 道德의 實踐 내지 善行爲의 原動力이나 當爲性에 관련된 “天命”의 觀念이 敬을 中心으로 하여 道德의 行爲, 人間觀, 世界觀의 近著를 이루었다. 즉 “敬은 一心의 主宰로서 萬事의 本根”으로, 마음은 하늘로부터 받았으며 이 마음을 主宰하고 制御하는 것은 敬이다(敬卽心). 그리하여 마음은 萬事의 根源이 되며, 따라서 一身을 主宰하게 되므로 不斷히 마음을 다스려서 忠孝와 禮를 다하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行動으로 抑制하는 삶이 可能하며, 自然 그대로 家族을 中心으로 한 이웃과 더불어 熱心히 사는 삶이 繼承되어 왔으며, 이러한 行態에 佛敎的, 道敎的, 民間信仰의 生活態度 및 價値觀이 影響을 미쳐서 慣習의인 삶의 行爲로 繼承되어 健康(疾病)을 위한 健康慣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이에 비해 西歐文化思想은 實用主義 및 實存主義에 의한 價値 및 信念으로, 즉 行爲를 위해서 利益이 되는 것만이 眞理이며, 主知主義에 反對하고 知識보다는 生活에 有用한 價値를 重視하고 人間의 欲求를 第一로 보는 功利主義로서 動的, 實踐的, 進步的 立場의 思考原型에 根據한 健康慣行임을 確認할 수 있다.

結果적으로 韓國人은 包括的, 抽象的, 直觀的인 마음을 中心으로 한 健康慣行이 普遍的이고, 西歐人은 마음보다는 身體를 中心으로 한 具體的, 行動的, 能動的인 自己 中心의 慣行이 實施됨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本研究는 韓國人의 傳統文化思想에 準據를 두고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하므로 對象者의 傳統文化思想에 따른 特性이나, 그들이 처해있는 環境 및 要求를 알게 됨으로써 文化的 要求에 一致하는 適切한 健康敎育 및 健康慣行의 提供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韓國人의 基層文化에 內在해 있는 一連의 健康慣行들은 우리 傳統文化思想에 의한 것으로 固有한 文化的 特徵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結果는 Leininger의 橫文化看護理論에서 健康이란 文化的 定義에 의한 文化現狀이라고 主張한 바와 一致하며, Tripp-Reimer를 爲始한 橫文化看護理論家들의 文化的으로 相對的인 觀點을 가진 看護提供者는 對象者인 患者의 文化的 脈絡 안에서 橫文化的인 對象者의 要求, 行爲 등을 理解하여야만 한다는 主張과도 一致하는 것으로, 健康敎育이나 健康慣行 提供에 있어 文化的 要因이 看過되어서는 안되는 重要한 것임을 立證하고 있는 結果로 보인다.

本研究의 結果가 看護學에서 어떤 意味를 갖는지, 看護理論, 研究, 敎育 및 實務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看護理論 面에서 볼 때, 橫文化看護理論에 立脚하여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個人의 觀點에 실제 慣習의으로 遂行해온 것을 記錄 確認함으로써, 看護의 重要概念인 對象者, 環境, 健康(疾病), 돌봄의 諸般 狀況을 文化的으로 理解할 수 있어, 看護理論 驅逐을 위한 4 段階 中 첫 段階, 즉 看護現狀에서 健康과 돌봄에 必要한 要因들을 抽出하여 그 本質이나 性質, 깊이 등을 質的分析을 통해 把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詳細한 狀況 記述 段階로서, 看護理論發達을 위한 가장 基本이 되는 入門의 段階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理論構築의 基礎資料를 提供하였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고 본다.

看護研究 面은 民俗科學의 研究法의 參與觀察 및 面接을 통한 敘述的方法은 서로 다른 文化的 背景을 가진 사람들의 emic 觀點에서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確認하는 質的研究方法으로서, 看護對象者의 觀點에서 그들이 主觀的으로 認知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을 蒐集하고 分類, 分析하여 解析하고 記述하는 一連의 課程을 통하여, 對象者가 가지고 있는 文化에 合當한 信念 및 價値體系를 把握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즉 종래 研究의 理論에 立脚한 看護는 他文化集團의 特殊性을 看過하고 그 文化의 普遍性 내지 自民族 中心主義에 置重한 韓國人의 內面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傳統文化思想의 沒理解 또는 輕視로 眞情한 意味에서 對象者 中心의 看護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韓國固有한 傳統文化思想이 對象者의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確認하였으므로, 韓國文化에 適合한 看護理論의 開發을 위한 研究의 礎石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看護教育 面에서 볼 때, 文化의 多樣성과 健康, 疾病間의 關係를 強調하여 總體的이고 質的인 看護를 實踐할 수 있는 教育을 實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西歐理論을 中心으로 한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은 물론 우리 固有한 傳統文化思想에 基礎한 健康慣行을 紹介함으로써, 文化의 一致되는 健康教育 및 看護提供을 위한 基礎教育資料로써 活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또한 이 結果는 意義가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끝으로 看護實務에 있어서, 個個人의 健康慣行은 文化의 一致되는 文化의 側面에 대한 理解 없이는 全人的, 總體的인 理解가 不可能하며, 看護의 重要概念인 對象者의 처해있는 環境에 따른 健康(疾病)을 위한 質的인 돌봄이 不可能하리라 본다. 즉 人本主義의 看護提供이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結果는 科學的 物質文明인 西歐文化의 無防備한 誘入에도 不具하고 우리 思考의 原型이 固有한 傳統文化思想에 立脚하여 우리 固有의 特殊한 文化의 特性이 確認된 바, 이러한 對象者의 文化의 特性을 看護에서 考慮하고 反映함으로써 人間에 대한 보다 全人的, 總體的인 理解에 基礎를 둔, 質的인 人本主義의 看護提供을 可能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本 研究의 意味를 또 한번 附與할 수 있다고 思慮된다.

以上の 結論을 中心으로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本 研究의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의 確認은 窮極的으로 우리 文化要求에 一致되는 健康慣行을 教育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質的인 人本主義의 看護로 의 發展에 도움이 되고져 試圖된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 地域의 基層文化에 속해 있는 健康慣行을 確認, 比較하

여 우리 文化 固有의 健康(疾病)에 따른 健康慣行이 體系化 될 수 있도록 補完 研究가 要求된다.

2. 韓國 固有의 文化看護理論의 定立을 위하여 教育過程속에 深度깊은 韓國 固有의 傳統의 文化思想의 理解를 促求시킬 수 있도록 敎養科目을 履修하게 하고 健康專攻科目에서도 連繫性을 갖도록 強化해야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姜信杓, 韓國人의 生活意識, 廣場, 1983, (1), 123-129.  
 경제기획원 인구조사통계국, 1990년 2월.  
 高大燾, 儒學에 있어서 마음의 問題와 教育, 韓國精神文化研究院大學院 論文集, 1987, 2, 297-324.  
 高誠晞, 韓國人의 精神健康 概念에 대한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金장태, 儒教에서의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건강연구, 서울: 한대정신건강 연구소, 1984, 2, 12-21.  
 金광익,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 한국문화인류학, 1986, 18.  
 金광일, 한국의 전통적 질병개념, 최신의학, 1972, 15, 49-54.  
 金기설, 민속에 나타난 건강개념, 한국민속학, 1982, 14, 41-58.  
 金남선, 한국 일부지역 농촌인의 질병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金동욱, 최인학, 최길성, 최래옥, 한국민속학, 서울: 새문사, 1988.  
 金성래, 한국농촌의 전통의료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인류학논집, 서울대 인류학회, 1978, 4, 3-57.  
 金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 1985.  
 金인회, 정순목, 한국문화와 교육, 서울: 이대출판부, 1974.  
 金인회,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 1979.  
 金재만, 듀이 철학, 서울: 박영사, 1980.  
 金재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대출판부, 1987.  
 金 積, 홍원식, 한국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경희대 한의대논문집, 1982, 5, 41-63.  
 金충렬, 유가의 윤리, 서울: 박영사, 1979.  
 金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서울: 집문당, 1983.  
 金태길, 존듀이의 사회철학, 서울: 태양문화사, 1979.



- 김학규 역, 세계사상대전집(5), 서울 : 대양서적, 1970.
- 도광순 역, 퇴계선생 자성록, 서울 : 삼중당, 1983.
- 리 푸랜세카, 대통령의 건강, 서울 : 보건신문사, 1988.
- 박영신, 한국사회발전론 서설,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1983.
- 박영은, 풍습, 풍속전통(2) : 체계적 인식을 위한 사회적 인식론, 정신문화연구, 1984, 2, 85-99.
- 방매륜,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삼화서적, 1977.
- 송용섭, 홍원식, 張從正의 生涯와 醫學思想, 경희대의대 논문집, 1986, 9, 319-329.
-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 11판, 1981.
- 辛章善, 儒敎와 佛敎의 孝思想 比較,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심우섭, 한국전통사상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1990.
- 안병주, 이기동 역, 이퇴계의 경의 철학, 서울 : 신구문화사, 1986.
- 유대중, 우리의 음식문화, 노인생활, 1989, 73, 96-99.
- 윤병식, 原始, 部派佛敎의 思想, 僧伽, 1985, 3, 서울 :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 을유문화사, 1984.
- 윤사순, 고익진, 한국의 사상, 서울 : 열음사, 1985.
- 윤순영, 현대의료와 한국농촌의료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지역사회 보건위원회, 1978.
- 윤찬원 역, 노자와 도교, 서울 : 서광사, 1988.
- 尹天根, 中庸研究 - 率性修道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윤태림,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 현암사, 1971.
- \_\_\_\_\_, 한국사회에 조명된 한국인의 심리, 광장, 1981, 3, 32-36.
- 이경훈 역, 불교의학, 서울 : 경서원, 1987.
- 이규태, 한국인의 맥(8권) - 한민족의 뿌리, 서울 : 한국출판공사, 1986.
- 이부영, 한국 샤머니즘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2, 11, 121-129.
- \_\_\_\_\_,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1978.
- \_\_\_\_\_, 가치관과 정신위생, 강원대 학생생활연구소편, 현대사회의 가치관, 춘천 : 강원대출판부, 1983.
- 李相任, 原始佛敎와 莊子의 人間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6.
- 이어령, 한국인의 생활과 마음, 이어령 신작전집 9권, 서울 : 갑인출판사, 1977.
- 이영자, 간호이론과 동양사상, 대한간호학회 과학의 날 기념 춘계학술대회, 1989.
- 이영호,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일지사, 1975.
- 이재만, 철학개론, 서울 : 동성사, 1988.
- 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 서울 : 집문당, 1989.
- 임재해, 민속문화론 : 문제와 시각 15, 서울 : 태광문화사, 1987.
- 임한영, 존 듀이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배영사, 1984.
- 전경진 역, 기의 사상,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 정순옥, 한국 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인간관, 광장, 1980, 12, 20-23.
-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 서울 : 형설출판사, 1983.
- 조남국, 조남옥, 성학과 경, 서울 : 양영각, 1987.
- 朱子大典 卷 59.
- 池教憲, 東洋의 自然法思想과 法實證主義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서울 : 한양대 정신 건강연구소, 1984, 2, 53-65.
- 車樺柱, 老子에 있어서 道의 意味와 道의 體認,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7.
- 차주환, 한국의 도교사상, 서울 : 동화출판공사, 1986.
- 최길성, 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본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건강연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1984, 2, 1-11.
- \_\_\_\_\_, 부정관념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상북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 심설당, 1988.
- 최동희, 서학에 대한 한국실학의 반응,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성동문화사, 1988.
- 최영희,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 이대간호학연구소, 1주년 기념학술심포지움, 1989.
- 최 협,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 청담, 1983.
- 한기연, 전통교육에서 본 한국인, 정신문화, 성남 : 한국정신 문화 연구원, 1982, 봄, 45-56.
- 韓相福, 李文雄, 金光億, 文化人類學概論,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국, 1986.
- 황경식, J. Dewey의 윤리학, 서울 : 삼일당, 1982.

- 황의완, 김지혁, 동의정신의학, 서울 : 현대의학서적사, 1987.
- 허 준 원저, 동의보감, 서울 : 남산당, 1981.
- 허 진, 박찬국,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 한의대 논문집, 1986, 9, 301-317.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연구, 업적보고서, 서울 : 동아 문화연구위원회, 12, 1972.
- Aguilera, C., Sociocultural Factors : Barriers to Therapeutic Intervention, *J. of Psychiatric Nsg.*, 1970, 8(5), 14-18.
- Bailey, E.J., Sociocultural Factors and Health Seeking Behaviors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1987, 79(4), 389-392.
- Beatie, J. *Other Cultures : Aims, Methods and Achievements in Social Anthropolog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4, cited by 최재혁 역, 사회 인류학, 서울 : 일지사, 1978.
- Bee R. *Patterns and Process :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ical Strategies for the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New York : The Free Press, 1974, cited by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Belloc, B. & Breslow, L.,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 *Preventive Medicine*, 1972, 1, 409-421.
- Benet, S.A., *The Long-Living People of the Caucasu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4, cited by Leininger, M., *Transcultural Eating Patterns & Nutrition : Transcultural Nursing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Holistic Nurs. Pract.*, 1988, 3(1), 16-25.
- Bilitski, J.S., Nursing Science and the Laws of Health, *ANS*, 1981, 4(1), 15-29.
- Boyle, J.S., Use of the Family Health Calendar and Interview Schedules to Study Health and Illnes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edited by Leininger, 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ew York : Grune & Stratton, 1985.
- Brink, P., *Transcultural Nursing : A Book of Reading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76.
- Brubaker, B.H., Health Promotion : A Linguistic Analysi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3, 4, 1-14.
- Bush, H.A., Models for Nursing., *ANS*, 1979, 1(2), 13-21.
- Capra, F., *The Tao of Physics*, Berkeley Shambhala London, Wildwood House Co., 1975.
- Carter, M.A., Professional Practice : Why do we ar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89, 5(2), 65.
- Choi, Elizabeth, 건강행위의 개념분석, Korean Hornor Society of Nursing, 학술대회보고서, 1988, 1-4.
- Davis, J.H., Using Participant-Observation in Community Based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6, 3, 43-49.
- Deers, D., Editorial : On Clinical Scholarship (again),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88, 20(1), 2.
- Dibble, C., Epilogue(Unpublished Handout from Educational Psychology, 636 : Cross-Cultural Counseling, Available from University of Utah,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Salt Lake City, Ut 84112), 1983, cited by Herberg, P., *Theoretical Foundations of Transcultural Nursing*, in Boyle, J.S. & Andrews, M.M., Ed., *Transcultural Concepts in Nursing Care*, Scott, Foresman/Little, Brown College Division, 1989, 3-65.
- Diels, H. & Krunz, W.,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Hamburg, Rowohlk, 1968, cited by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 정신 건강연구, 서울 : 한양대정신건강연구소, 1984, 2, 53-65.
- Dougherty, M.C. & Tripp-Reimer, T., The Interface of Nursing and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85, 14, 219-241.
- Fawcett, J., Contemporary Nursing Research, ed. Chaska, N.L., *The Nursing Profession*, New York : McGraw-Hill, 1983.
- \_\_\_\_\_,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ceptual Models of Nursing*, Philadelphia : Davis, 1984.
- Flaskerud, J.H. & Halloran, E.J., Areas of Agree-

- ment i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NS*, 1980, 3(1), 1-7.
- Frye, S., The Ethic of Caring : Can it survive Nursing?, *Nursing Outlook*, 1988, 36(1), 48.
- Gaston-Johansson, F., DrMedsc, Albert, M., Fagan, E., and Zimmerman, L., Similarities in Pain Descriptions of Four Different Ethnic-Culture Group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990, 5(2), 94-100.
- Gikow, F.F. & Kucharski, P.M., A New Look at the Community : Functional Health Patterns Assessment,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7, 4, 21-27.
- Herberg, p., *Theoretical Foundations of Transcultural Nursing*, in Boyle, J.S. & Andrews, M.M., Ed., *Transcultural Concepts in Nursing Care*, Scott, Foresman /Little, Brown College Division, 1989, 3-65.
- Hogstel, M.O. & Kashka, M., Staying Healthy after 85, *Geriatric Nursing*, 1989, January-February, 16-18.
- Jung, C.G., *Das Geheimnis der Goldenen Blute*, Zurich., 1965.
- Kaplan, G.A., Seeman, T.E., Cohen, R.D., Knudsen, L.P. & Guralnik, J., Mortality among the Elderly in the Alameda County Study : Behavioral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7, 77, 307-312.
- Kelly, L., Editorial : The Ethic of Caring : Has it been discarded?, *Nursing Outlook*, 1988, 36(1), 17.
- Kleinman, A., Eisrnberg, L. & Good, B., Cure, Illness, and Clinical Lessons from Anthropologic and Cross-Cultural Research,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78, 88(2), 251-258.
- Kluckhohn, C., *Spiegel der Menschheit*, Zurich, 1951, cited by 김영근(1986), 문화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문화인간학의 입장에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eininger, M.M., Introduction : Nature of Science in Nursing, *Nursing Research*, 1969, 18(5), 388-399.
- \_\_\_\_\_,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John Wiley & Sons, Inc., 1978.
- \_\_\_\_\_, Transcultural Nursing : An overview, *Nsg. Outlook*, 1984, 32(2), 72-73.
- \_\_\_\_\_, Trans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 A Theory of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1985, 6(4), 209-212.
- \_\_\_\_\_, Caring,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986, 16(11), 4.
- \_\_\_\_\_,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 Cultural Care Diversity & Universality, *Nsg. Science Quarterly*, 1988a, May 30, 152-160.
- \_\_\_\_\_, Transcultural Eating Patterns & Nutrition : Transcultural Nursing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Holistic Nurs. Pract.*, 1988b, 3(1), 16-25.
- Leininger, M.M. and Watson, J., Care : The Imperative of Nursing Education and Service, The Caring Imperative in Education,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90, 1-5.
- Littlewood, J., A Model for Nursing Using Anthropological Literature, *Int. J. Nurs. Stud.*, 1989, 26 (3), 221-229.
- Lubben, J.E., Weiller, P.G. & Chi, I., Health Practice of the Elderly Poo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9, 79(6), 731-734.
- Lundh, U., Soder, M. & Waerness, K., Nursing Theories : A Critical Review,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88, 20(1), 40.
- Marguerite, P., Culture and Preventive Health Care, *JOGN Nursing, November-December* : 1978, 40-46.
- Marshella, A. & White, G., Cultural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Therapy, D. Reidel, Dordrecht. 1982, cited by Rosenbau, J.N., Depression : Viewed from A transcultural Nursing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9, 14, 7-12.
- Martin, M.E., Henry, M., Cultural Relativity and Poverty, *Public Health Nursing*, 1989, 6(1), 28-34.
- Mason, D.J., Perspectives on Poverty, *Image*, 1981, 13, 82-85.

- McKenna, M., Anthropology and Nursing the Interaction between Two Fields of Inqui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984, 6(4), 423-431.
- Morgan, G., *Images of Organization*, Beverly Hills, CA : Sage, 1986.
- Newman, N.M.,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Philadelphia : F.A. Davis Co., 1979.
- Newman, M.A., The Continuing Revolution, ed. Chaska, N.L., *The Nursing Profession*, New York : McGraw-Hill, 1983.
- NLN, *Conceptual Framework*,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75.
- Pesznecker, B.L., The Poor : A Population at Risk, *Public Health Nursing*, 1984, 1(4), 237-249.
- Ray, M., The Theory of Bureaucratic Caring for Nursing Practice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89, 13(2), 31-42.
- Rosenbaum, J.N., Depression : Viewed from a Transcultural Nursing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9, 14, 7-12.
- Smith, J.P., Concept of Nursing Literacy : An Energizing Force in Health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3, 8, 69-75.
- Spector, R.E.,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2nd ed., Appleton-Century-Crofts, 1985, 24-35.
- \_\_\_\_\_, Heritage Consistency : A Predictor of Health Beliefs and Practices, *Recent Advances in Nursing*, 1989, 23, 23-35.
- Spicer, E., ed. *Ethnic Medicine in the Southwest*, N.Y. : Russell Sage Foundation, 1977, cited by Spector, R.E.,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2nd ed., Appleton-Century-Crofts., 1985.
- Spradley, J.,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9.
- Stephen, R.K., A Sociocultural Concept of Health and Illnes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976, 1(3), 222-228.
- Stumpf, P.S., The Culture of Poverty : An Overused Conceptual Model, In Chinn, P.L. (Ed.), *Advanced in Nursing Theory development*, Rockville, MD : Aspen., 1983.
- Suchman, E.A., Health Attitudes and Behaviour, *Arch.Environment Health*, 1970, 20, 105-110.
- Toynbee, A.J., *Surviving the Future*, 홍사중 역, 대화, 삼성문고,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2.
- Tripp-Reimer, T., Brink, P.J., Saunders, J.M., Cultural Assessment : Content & Process, *Nsg. Outlook*, 1984, 32(2), 78-82.
- Tripp-Reimer, T.,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Patient Teaching,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89, 20(3), 613-619.
- Watson, J., *Nursing : Human Science & Human Care :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T : Appleton-century-crofts, 1985.
- \_\_\_\_\_, New Dimensions of Human Caring Theor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88, 1(4), 175-181.
- Wing, D.M., Community Participant-Observation : Issues in Assessing Diverse Culture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9, 6(3), 125-133.
- Wingard, D.L., Berkman, L.F. & Brand, R.J., A Multivariate Analysis of Health related Practices : A Nine-Year Mortality follow-up of the Alameda County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982, 116, 765-775.
- Wylie, C.M.,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and Disease, *Public Health Resp.*, 1970, 85(2), 101-104.
- Zborowski, M., *People in Pain*, San Francisco : Jossey-Bass, 1969, cited by Gaston-Johansson, F., DrMedSc, Albert, M., Fagan, E., Zimmerman, L., Similarities in Pain Descriptions of Four Different Ethnic-Culture Group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990, 85(2), 94-100.

— Abstract —

## Ethnoscientific Approach of Health Practice in Korea

*Kim, Kwuy Bun\* · Choi, Young Hee\*\**

In order that nursing care an essential quality of nursing practice be acceptable and satisfying, it is necessary that client's culture be respected and that nursing practice be appropriate to that culture. Since cultural elements are an important influence on health practices and life pattern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recovery from and prevention of disease, nurses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to aid in the planning of nursing interventions.

To understand the health practices surrounding health and illness, the health beliefs and practices of both folk and professional healing systems should be ascertained. Cultural data are required to provide care of high quality to clients and to reduc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client and the nurse. It is nursing's goal to provide clients from various cultures with quality nursing care which is satisfying and valuable.

The problem addressed by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health practices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planning of professional caring practice with the culture : ultimate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nursing.

The concret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

- 1) to identify Korean health practices,
- 2) to interpret the identital health practices through traditional cultural thought, and
- 3) to compare the Korean health practices with those of other cultures.

The investigator used the ethnoscientific ap-

proach outlined by spradly in a qualitative study. To discover ancestral wisdom and knowledge related to traditional health practe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residents of a small rural mountain village in south west Korea, a place considered to be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the traditional culture in a relatively well -preserved state because of being isolated from the modern worl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8, aged 71 to 89.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8 to March 31, 1990. Five categories of health practices were identified : "Manage one's own mind", "Moderation in all thing", "Live in accord with nature", "Live in mutuality with others", and "Live to the best of one's ability".

Values derived from these ways of thinking from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help fashion a traditional way of life, examplified by the saying "Benifience to all".

Korean thought and philosophy is influenced primerily by Confucianism, Confucian principles of ethics, embedded deeply in the peoples' minds, form the idea that "heaven and human being are intimately united" based on concept that "heaven is, so to speak, reason". Twoe Gae's theory of existential subjectivity develops the concept of self which is the basis of the spirit of reverence in modern Confucian philosophy. The human mind is granted from heaven out of the idea of matter, and what control the mind is the spirit of reverence. Hence the idea of "The primacy of the mind" and provided that one should control one's own mind. The precepts of duty to parents, respect for elders and worship of ancestors, and moderation in all behavior put a restraint on life which directed that one live earnestly according to Nature's laws with their neighbors. Not only Confucianism, but also Buddhism and Taoism have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these patterns of ideas.

---

\*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 Ew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When compared with western culture, Korean health practices tend to be more inclusive, abstract and intuitive while westerner health practices found to be more concrete, practical and personal. Values and beliefs based and pragmatism and existentialism influence western civilization. Ethical values may be founded on utilitarianism, which considers what is good for the persons in their circumstances as the basis of conduct and takes a serious view of their practical lives including human aspirations rather than an absolute truth. These philosophical and ethical ideas are foundations for health practices re-

lated to active, practical and progressive attitudes.

This study should be enable nursing not only to understand clients as reflections of the traditional culture when planning nursing practice, but to develop health education corresponding to cultural requiremen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gainst disease and improvement of health, and thus promote sound health practice. Eventually it is hoped that through these processes quality nursing care as the central idea of the science of nursing will be achieved.